

해군 최신에 3600톤급 호위함 '충남함(FFG-828)' 진수식 거행

4월 1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충남함'진수식 거행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4월 10일 오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Batch-Ⅲ 1번함인 '충남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의 첫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충남함은 지난 2020년 3월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2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거행했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이며, 기공식은 함정의 첫 번째 블럭을 건조 선대에 거치하는 행사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 한영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부인 제미영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주빈 내외, 충남함장 등이 가위로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삼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을 진행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충남함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본보기이자 해양강국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군은 최신에 전투함인 충남함이 해역함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호위함인 충



▲ 충남함 항해 이미지(CG)

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주요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 장비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능력이 집약된 함정이다.

특히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 Multifunctional Phased Array Radar)를 처음으로 장착했다. 충남함의 레이더는 이지스레이더와 같이 4면 고정형 위상배열레이더로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해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해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Batch-I(인천급)과 Batch-II(대구급) 호위함은 회전형 탐지레이더와 추적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한다.

또한 충남함의 마스트는 첨단과학 기술을 집약한 복합센서마스트(ISM, Integrated Sensor Mast) 방식을 적

용했다. 복합센서마스트에는 4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Batch-II(대구급)와 동일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을 적용해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를 운용함으로써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道)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2022년 11월 함명 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산급 Batch-Ⅲ 1번함의 함명을 충남함으로 제정했다.

충남함의 함명을 처음 사용한 함정은 미 해군으로부터 1963년에 인수한 DE-821함(호위구축함)으로 1964년 우리 관할해역에 진입한 구조선 잠수함을 퇴거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두 번째로 충남함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은 국산기술로 건조한 FF-953함(호위함)이다. 두 번째 충남함은 1992

년 최초로 세계일주 순항훈련을 완수했고, 해양수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후 2017년 퇴역했다.

방국철(고위공무원)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충남함은 국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한 최신에 호위함으로, 향후 국내개발 한국형 이지스체계를 탑재하게 될 차기 구축함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내 함정 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진(중령) 충남함 함장은 "승조원 총원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충남함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충남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배치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토지분양·민자유치 탄력

전국 최초 일부 준공승인...행정절차 간소화로 투자여건 개선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일부 시설부지가 분양 전 준공 승인을 받아 향후 토지 분양 및 민간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라남도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그동안 지속해서 협업에 나선 결과 총 507만 3천㎡ 중 273만 3천㎡의 준공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 한국관광공사가 개발을 시작한 지 32년만으로, 관광단지가 분양 전 시설부지가 대규모 일부 준공 승인을 받은 것은 2009년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 사례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 시 분양 토지 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과 금융권 대출 편의 증진 등 행정 절차 간소화로 타 관광단지보다 민간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승인 면적은 전체 면적의 53.9%로 임시 사용 중인 골프장(27.1%)까지 합하면 전체면적 대비 81%에 해당한다. 이번 준공승인에서 제외된 지역은 공유수면 지역으로 향후 추가 매립 후 분양 및 개발 예정이다.

해남 화원면에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개발 사업으로 2009년 8월 기반 조성 공사를 준공했다. 현재 바다에 인접한 27홀 대중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따뜻한 기후로 사계절 운영되는 축구장은 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240면, 21만 4천㎡ 규모 캠핑장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전남 캠핑관광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노을이 아름다워 국내의 캠핑들이 가장 가고 싶은 캠핑장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올해 9월엔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120실 규모의 4성급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이 개장 예정으로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특히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천사대

교와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지역 유명관광지가 근처에 있고 국도 77호선인 서남해안 관광도로 압해도~화원간 해저터널 및 연도교 착공, 목포-해남-보성 남해안철도 개통 및 무안국제공항 KTX 연결 등 주변 지역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투자 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밖에 핵심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이 4월 중 착공 예정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관광공사는 오시아노 리조트호텔 개관과 연계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연중 다양한 이벤트와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체험상품과 프로그램도 지속 선보일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한국관광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관광단지 내 개발행위 등 모든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박진 외교부장관, G7(주요 7개국 협의체) 주한대사 초청 만찬 개최

G7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G7과의 협력과 연대 강화



박진 외교장관은 4.10일 G7(주요 7개국 협의체) 주한대사 초청 만찬을 개최하여 한국이 올해 5월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을 환영하며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G7과 적극 협력하고 전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전 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한 G7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

를 표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주최국이자 차기 정상회의의 주최국으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 우방국·가치공유국간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및 전쟁 종식과 평화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에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과정에서 G7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언급했다.

최광수/기자

만찬에 참석한 주한대사들은 한국의 G7 정상회의의 참석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 대응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 현안 관련 한-G7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주한 G7 대사들을 대상으로 지난주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 엑스포 개최로서 부산의 강점과 박람회 개최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체험했음을 설명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지지를 당부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종자를 찾는 전담기관이 없다보니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으로 실종 예방 사업과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등을 통해 실종된 발달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조례안 21건, 동의안 8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6건의 안건 처리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칙안 2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일과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재)용인시정영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용인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공공디

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제27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의견을 채택했다.

조혜영/기자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최

성남시의회는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를 덧붙여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했다. 또한 강상태 의원, 조정식 의원, 박주운 의원, 박종각 의원, 박기범 의원, 김보석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박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를 드린다. 정자교 뿐만 아니라 단천 교량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와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를 목표로 하여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자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도 기초와 원칙을 준수하며 철

저한 점검과 사전 예방으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오는 12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부산시의회, 제2차 2030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홍보활동 결과보고회 개최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활동 성과 분석과 향후 전략 논의

부산광역시의회 오는 11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해외 홍보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륙별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 8개국에 파견한 홍보사절단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기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절단으로 참여한 의원 20여 명도 이날 보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작년 10월 1차에 이어 지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의원 22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눠 8개국에 사절단을 파견해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그룹은 남동유럽을 담당하여 불가리아와 그리스를 찾아 경제산업

부차관, 외교부 인사 등을 만나 프레젠테이션 등을 하면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동남아시아를 담당할 2그룹은 스리랑카 정부장관, 몰디브 관광부장관 등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서유럽을 담당할 3그룹은 국제기구가 몰려있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를 방문 부산 엑스포의 친환경 주제 의식을 설명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또 최근 부산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전국적 열기를 부산으로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여 시의원 및 시민의 유치응원을 담은 '피켓 퍼포먼스'와 '메시지 소망나무'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개최지 표결에 대비하여 1·2차 홍보사절단을 파견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한 17개국에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지지요청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 여러 도시와 자매의회협약을 체결하여 도시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등의 외교활동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보고회를 마친한 강무길 운영위원장은 "BIE실사단 방문은 끝났지만 금년 11월 개최지 결정까지 한 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우리 곁 장항도 부산에서 2030세계박람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회장 심홍순)'는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심홍순 회장, 광미숙, 이택수, 이상원, 이인애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최명섭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지역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저하되고, 도시기능 등이 떨어진 1기 신도시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이다.

연구회 회장인 심홍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30년전에 계획된 신도시와 달라진 현재의 신도시 차별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 재건축 방안이 될수 있도록 연구에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1기 신도시의 추가적인 계획이나 투자, 시설개선, 재건축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는 남아 있어, 1기 신도시의 합리적 재건축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가 발주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7월 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더 크게 들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2023. 4. 6. (목) ~ 4. 19. (수) 14일간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https://council.yongin.go.kr>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대선 (112)	문화부: 대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대선 (113)	부동산부: 대선 (117)
	경제부: 대선 (114)	오피니언부: 대선 (118)
	스포츠부: 대선 (115)	지방부: 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불안NO'...서울시 안심장비지원 확대·강화로 안심특별시구현

내집 안팎 지켜줄 '안심홈세트' 필수 2종 직접 지정, 지원대상도 모든 1인가구로 확대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인 A씨는 밤이나 새벽에 귀가할 때마다 낯선 이가 따라와 깜짝 놀란 적이 많았다. 집 안에 혼자 있을 때에도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에 침입하려 한 시도를 느낀 A씨는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그 후 A씨는 관할 자치구에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의 하나인 '안심홈세트'를 신청했고,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A씨는 "귀갓길 또는 외출 시 불안할 때마다 휴대폰을 통해 집 안팎을 살펴볼 수 있게 됐으며, 주거침입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주거침입 및 스토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홀로 사는 1인가구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개시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 (여성)1인점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의 안전물품을 지원 중인데, 작년 한 해 총 2,400여 가구 및 점포에 지원했으며, 4.5점(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기존에는 각 자치구별로 지원물품

이 달라 지역 간 편차가 있었다면, 이제는 1인가구가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주거침입 예방에 효과적인 2종을 필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 집 안팎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시가 직접 지정한 '1인가구 안심홈세트' 필수 2종은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외출했을 때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로 구성된다. 자치구별로 필수 2종에 더해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안심홈세트'의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액임차 1인가구에 한정됐다면, 올해부터는 임차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1인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세부 지원대상은 지역특성,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여성 1인점포에 지원하고 있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지급하여 위급상황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 없이 즉시잠금 기능이 구현된 '디지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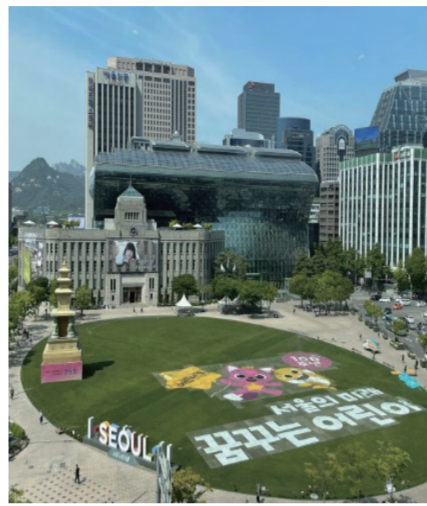
도어록' 또한 지원함으로써, 필수지원 장비를 작년 2대에서 4대로 늘렸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에게 지원되는 필수 4종세트에는 '안심홈세트' 필수 2종(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이외에 '음성인식 비상벨'과 '디지털 도어록'이 지원된다.

'음성인식비상벨'은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음성인식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인식 비상벨' 단말기를 향해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며, 관제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디지털 도어록'은 2~3초의 간격을 두고 잠기는 기존 제품과 달리, 현관문을 닫을 시 즉시 잠기는 기능을 구현한 제품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이 문이 닫히는 동안 완력으로 문을 밀치고 들어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1인점포에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 출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비상벨'을 지원한다.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



포나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신청방법 등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4.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사업으로, 올해는 내집 안팎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필수 지원물품을 지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촘촘하게 사업을 준비했다"며, "안심장비가 꼭 필요한 서울시 1인가구, 스토킹 피해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신청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초구, AI로 절도·폭력 신속 목격해 범죄 예방한다!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내의 스마트도시로 인종받은 서초구가 AI를 활용해 범죄와 안전사고 사각지대 없애는 스마트 그물망 행정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방범용 CCTV 영상 내 이상행동을 자동 감지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을 활용해 CCTV 영상 내 사람과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식별·분석한 후, 이상행동 발생 시 서초스마트허브센터 관제요원에게 즉각 표출해 준다.

이에 구는 인적이 드문 주택 밀집지역, 산책로, 등산로, 지하보도 등 최근 3년간 범죄 발생이 많은 곳을 중점 관제 대상으로 선정, 이곳에 AI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100대의 CCTV를 활용해 이상행동을 감지한다.

시스템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 서초스마트허브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중에 갑자기 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CCTV에서 △장시간 배회 △주택 담배락 침입, △주차된 차량 등이 행동, △새벽시간대 공인 내 음주나 청소년 비위, △휴일가 주변 폭행 등의 장면이 검출되면,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팝업으로 '배회, 폭행, 침입' 등의 메시지 표출과 함께 영상이 뜬다. 이를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해 위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경찰서 등에 신고한다.

구가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된 데는 이상행동이나 위험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다. 현재 서초스마트허브센터는 CCTV가 총 4,995대로, 관제요원 1

인당 약 760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간 효율적인 관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이번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으로 관제 효율을 높이고, 자동 감지를 통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범죄 발생 장면도 놓치지 않는 등 범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강남역 인근에 'AI 영상분석 기반 실시간 혼잡도 관제 및 안내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CCTV 영상의 면적 1㎡당 보행자의 머릿수를 자동 인식해 카운팅한 후, △여유 △보통 △혼잡 △매우혼잡 등 단계별 혼잡 상황을 4단계로 분류하여, CCTV LED전광판을 통해 보행자에게 알려 준다.

특히 면적 1㎡당 6인 이상(매우혼잡)인 경우는 CCTV LED전광판에 혼잡 상황을 표출하고, CCTV 방송 스피커를 통해 보행 통제 안내방송도 송출한다. 이에 인파를 분산 유도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의 '서초스마트허브센터'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주관 '서울시 베스트관제센터'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최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치안·범죄 뿐만 아니라 재난 사고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에 스마트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서대문구, 치매예방 걷기대회 다 함께 고!고!고! 개최

서대문구가 이달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흥제천 폭포마당 일대에서 치매예방 걷기대회 '다 함께 고!고!고! - 걷GO-알아가GO-함께 하GO'를 개최한다.

치매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여는 이날 행사에서는 300여 명의 주민에게 올바른 걷기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치매 예방법을 알린다.

1부는 치매안심센터 '노소노소(老小囍笑)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참여자들은 준비운동을 한 뒤 흥제천 변 산책로 약 3km를 걷는다.

2부에서는 서대문구립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서대문지사, 서대문구청건강복지센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희망누리,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가 참여해 기관을 홍보하고 예코백 색칠하기, 책갈피만들기, OX 퀴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걷기 활동과 체험부스 참여로 스트레스를 모두 모으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열려 흥미를 더한다.

참여 희망자는 행사 당일 흥제천 폭포마당 접수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저금리 대출로 소기업, 소상공인 어깨 활짝! '광진형 특별용자' 실시

고금리로 인한 자금 부담 해소코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광진구가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광진형 특별용자' 신청을 받는다.

'광진형 특별용자'는 담보력이 낮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이차보전 특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해 총 525억 원 규모의 용자금을 조성,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에서 2%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이로써 거치기간인 2년 동안 1.5%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용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력이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과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은 제한



된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상시 가능하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달 19일과 20일엔 구청에서 안내를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6층에서 '집중 상담처'를 운영한다. 별도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며, 지원자격과 절차, 혜택 등에 관한 맞춤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후 21일부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으로 사전 예약해서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19일과 20일, 집중 상담처 옆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

원센터'를 함께 운영한다. 특별용자는 물론 경영교육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자체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광진형 특별용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원/기자

서대문구, 산불 진화 구청 직원들에게 의류 기부한 상인...주위에 귀감

진화 작업 때 입을 저렴한 바지 찾던 서대문구청 직원들에게 선뜻 기부

서대문구는 관내 흥은2동에 소재한 한 의류 매장의 주인이 이달 초 인양산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선던 구청 직원들에게 작업복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직원(은)은 이달 2일 등짐펌프와 갈퀴를 들고 산불 현장에 투입됐고 작업을 하며 불씨와 재에 옷을 버렸다.

이튿날 다시 진화 작업을 앞둔 이 직원은 동료들과 함께 여벌 바지를 구매하기 위해 3일 해당 매장을 찾았다.

옷을 고르던 직원들에게 매장 주인은 용도를 물었고 A직원은 "인양산 산불 제거 작업 때 입을 바지라서 가장 저렴한 것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매장 주인은 새 작업복 바지를 여러 벌 꺼내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니 그냥 가져가라"며 직원들에게 건넸다. 또한 양말까지 내주며 역시 비용을 받지 않으려 했다.

A직원은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겨우 양말값만 지불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경험담을 서대문구 직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오는 겨울에는 내복을 꼭 이 매장에서 구입하려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미담을 접한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직원들의 수고와 매장 주인 분 같은 시민의 열정이 모여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진화된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만식/기자

송파구, '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든다... 319개 어린이집 현장점검

송파구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송파구의 어린이집 개소수는 319개소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영유아 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에 구는 올해 연말까지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꼼꼼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회계처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급식·건강·위생관리 실태 ▲통학차량·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이다.

또한 구는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부실급식 등 안심보육 3대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민원 제보사항 및 사실확인 이 필요한 중요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처벌된 사례는 관내 어린이집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4월부터 재원아동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 급식·위생·건강·안전 분야에 대한 관리 및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을 제공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황원식/기자

2023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 걷기대회

다함께 고!고!고!

걷GO! 달아GO! 함께하GO!

2023.04.13(목) 10:00 ~ 13:00

행사장소 1부 흥제천폭포마당 & 걷기코스 2부 흥제천폭포마당

행사장소 흥제천 폭포마당

문의전화 02-379-0183

서대문구청

금천구, 집합건물·아파트·교회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각종 혜택 받으세요!

금천구는 공영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및 근무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건물주(관리자)·구·이용자 간 협약 체결 후 건물주(관리자)에게 주차장 시설 개선비 보조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근무지와 가까운 건축물 내에 주차할 수 있고, 일부

시설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의 저렴한 주차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금천구는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신규사업지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교회,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우편물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도 개방주차장 신규(연장) 사업지에 시설개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규 개방 시 최대 3천만 원, 1회 연장 개방 시 최대 1천만 원, 2회 이상 연장 개방 시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천구는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전 주차장법 관련 위반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도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을

한다. 주차장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개방주차장 자체 운영 시 거주자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구와 업무 협약된 민간기업체 및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차장 개방사업 확대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며, 기존 부설주차장 시설을 활용해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민·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올터전' 시흥, 올해 주거 취약계층 복지 강화한다

최근 다양한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2023년도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지난 11일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올해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 시흥시는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 취약 아동과 청년 세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시 주택 및 재산 기준 지표 연동을 통한 시세 반영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아동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 다자녀 전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9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10호 추가 공급을 목표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청소·방역 서비스, 주택 개선 사업 등은 아동 포함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9월에는 총 470세대(청년 96호, 노인 92호, 신혼부부 282호)가 입주할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이 착공했고,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지난 11일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올해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시흥시는 시민의 가장 따뜻한 집이어야 한다"라며 "올해도 57만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아늑한 시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주거복지도시 시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스타트업,수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주)웰스케어,대진첨단소재(주),모빈(주)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대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0일 혁신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 3개사를 잇달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스타트업이 수원에서 성장하고, 뿌리 내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입주 기업인 (주)웰스케어, 대진첨단소재(주), 모빈(주)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성정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용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한 스타트업, 첨단기술 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수원기업새싹펀드를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발하게 소통하길 바란다"며 "수원시 행정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설립된 (주)웰스케어는 '신체부착형 레이저 통증 치료 3등급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바이오·의료 기업이다. 세포 활성화와 혈류개선 작용에 의한 다파장레이저 치료기기 등 20여 건으로 글로벌 특허를 확보했고, 미국의 온오프라인 전자제



품 판매 기업인 '베스트바이'에 한국 업체 최초로 진입했다. 누적 투자유치액은 1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2019년 1월 설립된 대진첨단소재는 이차 전지용 패키징 소재와 전기 자동차용 전장 부품·모듈을 제조하는 탄소섬유 제조기업이다.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내장재를 공급하고, 필리핀·베트남·미국·폴란드 등 해외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6월 140억 원 규모 시리즈 D(스타트업 투자 단계) 투자 유치를

했고, 누적 투자유치액은 5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천만 불 수출의 탑'을 받기도 했다.

2022년 12월 설립된 모빈(주)는 배달·순찰용 바퀴형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 로봇 제조업체다.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고,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 특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혜영/기자

부천시, 인구문제 대응 본격화...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 첫 회의

부천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관련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모집·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시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4가지 정책영역에 맞춰 84개 세부과제를 수행한다. 세부과제는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로 구성해 108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과제 중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임산부 콜택시 바우처 맘(mom)편한 택시'와 '365일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다.

'맘편한 택시'는 출산 장려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병원 이동 등 택시 이용 시 택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통 임신기간에만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천시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 출퇴근 용도로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지자체보다 지원범위가 넓다.

'365일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한 곳을 지정

하여 365일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부천시는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다. 거대 도시인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강점이 있는 반면, 주변 지자체와 달리 도시 면적이 좁아 각종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인구밀도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런 부천시의 특성을 활용하여 저출산·고령사회 흐름을 잘 대비할 것이며, 대청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와 대청호대 광역도로, GTX노선 등 각종 교통망 확충 사업이 예정된 만큼, 이를 통한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재)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2023고양국제꽃포럼'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동환)는 화훼 및 원예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논의하고 세계 화훼인의 상호 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2023고양국제꽃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4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2023고양국제꽃박람회와 함께 개최되며, 박람회 기간 중 4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서 진행된다.

2023고양국제꽃포럼은 '생활 속의 꽃(Flower in the Life)'을 주제로, 화훼산업과 원예 산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세션발표로 나누어 진행되며, 발표에 앞서 ▲개회식 ▲고양특례시의 이동한 시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첫째 날에는 화훼 산업의 트렌드와 기술, 유통을 중심 주제로 다룬다. ▲국제화훼무역기구 실비에 마미아스(Sylvie Mamias) 사무국장 ▲업사이트 임강후 대표 ▲팬 아메리칸 시드(Pan American Seed) 지엔핑 쉐(Jianping Ren) 수석 식물 육종가 ▲PHOOL 안킷 아가왈(Ankit Agarwal) 대표 ▲화훼 디자인 심사위원 앨리슨 브래들리(Alison Bradley)의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더불어 ▲화훼 작가 드미트리 투르칸(Dmitry Turcan)의 꽃꽂이 시연과 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실비에 마미아스 사무국장은 '세계 화훼 산업의 트렌드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화가 빨라지는 세계 화훼 산업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의 전망과 함께 최신 기술 동향 등을 다룬다.

뒤이어, 화훼작가 드미트리 투르칸이 꽃꽂이 시연과 함께 '고유 꽃꽂이 스타일에 대한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해당 발표에서는 개성있는 스타일로 꽃을 통해 전달하는 메

2023. 04. 28.금 - 04. 29.토		
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 고양국제꽃박람회		
사전등록(3,28 - 4,27)		
구분	1인권	단체권(10인 이상)
일반권	16,000원	15,000원
양일간	24,000원	23,000원
단체권(10인 이상)	14,000원	22,000원

시지와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세션 1에서는 'Ag Tech(농업 기술)'를 다루며, 두명의 연사 발표가 진행된다. 업사이트의 임강후 대표는 '화훼·원예 분야의 디지털 트윈 확산을 위한 정책 산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팬 아메리칸 시드의 수석 식물 육종가 지엔핑 쉐는 '화훼 육종의 변화: 과거와 미래'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Trade&Logistics'를 다루며, 버려진 꽃을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 기업 PHOOL의 대표 안킷 아가왈이 연사로 나서 '꽃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을 주제로 세션 발표를 이어나간다.

마지막 순서로, 국제적인 화훼 디자인 심사위원인 앨리슨 브래들리는 'Floral Fundamentals 플랫폼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플로리스트, 학생, 육종가, 학교 및 공급업체 등 화훼·원예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 'Floral Fundamentals'을 중심으로 진행 교육 및 네트워킹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날에는 화훼 디자인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된다. ▲게릴라 가드닝의 리처드 레이놀즈(Richard Reynolds) 작가 ▲국제플로리스트조직(Florint) 토마스 래츠커(Thomas Ratschker) 심사장 ▲국제플로리스트조직(Florint) 사이먼 오그리젝(Simon Ogrizek) 대표의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세션 3에서는 '디자인'을 큰 주제로 다루며, 두명의 연사 발표가 진행된다. 게릴라 가드닝 프로젝트를 진행한 리처드 레이놀즈 작가는 '화훼 산업에 끼치는 게릴라 가드닝의 문화적인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제플로리스트조직의 심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토마스 래츠커는 '독일 플로리스트의 디자인 교육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국제플로리스트 조직의 사이먼 오그리젝 대표는 '국제 화훼·원예 산업의 차세대 도전 과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2023고양국제꽃포럼'에 매 페이지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국제꽃박람회'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에메 페이지 접속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포럼 전일까지 참가자들은 얼리버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5인 및 10인 단체할인도 함께 가능하다. 또한 포럼의 참가자는 꽃박람회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3고양국제꽃포럼은 4월 28일, 29일 양일간 일산호수공원 화훼교류관에서 진행되며, 사전에 연사들의 발표 내용을 적은 사전자료집이 E-BOOK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김운영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국내외 화훼산업의 전문가와 함께 더욱 발전된 화훼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강화군,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한 "전력투구" 나선다!

전년대비 491억원 증가한 2,303억원 확보 계획

강화군이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천호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올해 국고보조금 1,812억원(본예산 기준)보다 491억 원이 증가한 402개 사업, 2,303억원을 확보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개산 관광자원 확충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특성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음연도교 건설사업 ▲농업용 배수개선 사업 ▲청년일자 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보행자 복합인자 플랫폼 구축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설치사업 등을 발굴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발굴한 75개 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국정과제 및 인천시의 투자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부처 및 국회 방문 등을 통한 사업 설명하는 등 예산을 최적으로 확보할 때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획한 사업들이 2024년도 정부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세일즈 행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해외방문)방미 첫 일정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심장부, 미시간찾은 김동연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개발현황 살펴. 협력 방안도 모색

- 김동연 도지사 10일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미시간대학교 엠시티 방문
- 자율주행차 관련 최신 기술 동향 견학.
- 김동연, “오늘 경험 토대로 경기도가 첨단모빌리티 산업 선두 주자 되도록 노력할 것”
- 엠시티 방문 후 배터리연구소 방문
- 이차전지 기술 개발현황, 기업과 대학과의 협업 사례 등 견학

4조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문 기관 공식 첫 일정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수도로 불리는 미시간주의 자율주행차-이차전지 관련 시설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첨단기술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10일 오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Ann Arbor) 미시간대학교에 위치한 엠시티(MCity)를 찾았다.

엠시티(MCity)는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일반 도시와 똑같은 도로 상황을 재현한 13만㎡ 규모의 세계 최초 모형 주행 시설이다. 철도 건널목, 회전교차로, 자갈길, 공사 현장, 인도, 주차장 등 여러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주행 안전성 실험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 교동안전공단 자율주행 실험 도시 K시티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헨리 리우(Henry Liu) 엠시티 센터장은 “엠시티는 2015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8년 정도 된 시설로, 세계 최초의 커넥티드 자율주행 자율 협력

테스트 전용 시설”이라며 “실제와 가상이 함께하는 복합 현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 차량이 운행 실험을 하면서 가상의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리를 함께한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함께 헨리 리우 엠시티센터장이 운영하는 자율주행차를 3km 정도 시승하며 기술 개발현황을 직접 체험했다. 시승 중에는 교차로에서 가상차량과 충돌하는 가상 돌발상황을 일으켜 자율주행차의 대응 상황을 살펴기도 했다.

시승을 마친 김 지사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사고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가상현실로 살펴봤다”라며 “경기도는 첨단 모빌리티를 만들 정도로 관련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오늘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가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도 “모빌리티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며 경기도에서 자율주행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엠시티 방문에 이어 김 지사는 미시간대 전기자동차(EV.electric vehicle)센터와 배터리랩(Battery Lab)을 찾아 전기차와 이차전지 개발 현황 등을 둘러봤다.

미시간대 배터리랩은 전 세계 학계, 산업 사용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시제품, 시험, 분석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이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수도인 미시간주 인근에 과학자, 엔지니어, 공급업체와 제조업체를 합



김 지사는 이곳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온 각종 개발 소재를 시험하는 시설, 실제 필요한 형태로 조립하는 시설 등 다양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현황을 살펴봤다. 견학을 마친 김 지사는 “7월 경기

정명근 화성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현안 건의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에 감사를 표하며 철도사업과 신도시 사업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이거나 구상 및 계획단계인 철도노선 등 화성시 광역 교통망 개선에 도움을 구했으며, 이를 통한 3기 신도시인 진안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화성 진안 테크노폴’조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부족한 택시 문제를 해소할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 ▲향후 서해안권 미래자동차 생산 클러스터로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인구 100만 특례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균형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을 건의드린다”며, “지난 수십 년간 국토교통부와 도시 발전을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화성시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제안하신 사업들을 잘 살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시현/기자

인천경제청, 소셜 미디어(SNS) 통해 IFEZ 관광·먹거리 알린다

인천경제청, 내·외국인 편의 제공 위해 올해 관광맛집 블로그·SNS 매체 운영 사업 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관광·먹거리 블로그 및 소셜 미디어(SNS) 운영 사업’을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의 매체별 특성에 맞는 관광·먹거리 콘텐츠를 제작·운영해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를 단순 번역이 아닌 원어

번역을 통해 외국인 정서에 맞게 번역하고 포스팅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또 외국인 친화 음식점 소개를 통해 다양한 맛집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메타 캐릭터’를 통해 국내외 SNS 이용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IFEZ 내 관광 먹거리 콘텐츠를 전달한다.

특히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IFEZ 내 행사·축제 진행시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유광조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앞으로 SNS를 통해 IFEZ의 다양하고 생생한 관광 명소와 먹거리를 발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광명시 1인가구, "경제적 지원 가장 필요"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생활안전 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정서적 지원 순

광명시 1인가구들은 ‘경제적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광명시 1인가구 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1인가구 1천7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내용은 ▲광명시 거주 1인가구 현황(연령, 지역, 교육 수준 등) ▲생활실태 ▲정책 수요 등이다.

조사 결과 1인가구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93.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적 지원이

4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 지원(19.2%), 생활안전 지원(12.5%), 사회적 관계망 지원(7.9%), 정서적 지원(6.4%), 동아리 지원(3.5%), 취업교육(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고용률 감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거지 감소, 주거비용 상승 등으로 1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13.4%가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사업을 꼽았다. 이어 소규모 생활시설 수리 및 청소 지원 12.1%, 고령 및 고독사 예방사업 11.1%, 운동 프로그램 및 산책 프로그램 10.3% 순이었다.

응답자의 69.4%인 1천209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34명의 73.8%인 394명은 장애인 일자리 또

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출 유형별로는 식자비(식료품 포함)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거관리비(월세 등) 21.0%, 보건 의료비 9.6%, 취미활동 및 여가 8.1%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미나 교육에 지출할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장은 “신청이 가장 많은 분야는 주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향후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는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번은 될 수 있는 1인가구들이 빛나는 솔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용민/기자

이천시, 도자기로 만들어 보는 세상의 모든 체험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이천도자기축제장을 매년 방문하고 있다. 첫째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5년 전에 우연히 찾아오게 된 도자기 축제장에서 아이가 물레체험을 하고 나서 좋아해 몇 해 방문하고 나서, 코로나로 잊고 있던 축제가 다시 열려 지난해에는 둘째도 도자기 체험을 하고 온 아이의 보람에 축제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이천시는 도자기축제를 찾는 주 관람객이 중장년층에서 아이들이 자녀로 두고 있는 30대~40대층으로 변화됨에 따라 가족단위 체험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공예 분야와 달리 도자기는 그 제작과정(물레, 가마체험)이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이기에 도자기축제장에서 경험하는 체험 콘텐츠는 해마다 일부러 찾아와 만큼 특별한 체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해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물레 체험, 흙빛기 체험 외에도 도자기 게임, 도자기 채색 등 도자기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축제기간 중에 어린이날 연휴가 포함되어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어린이들을 위한 특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절미/찰피자/와플 만들기, 승마, 드론축구 등 20여개가 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관계자는 “도자기축제가 열리는 이천도자기예술마을은 도자기를 중심으로 각종 공예체험이 가능한 공방도 많아 어느 축제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아이들과 함께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특별한 가족체험 축제가 될 것”이라며 체험 프로그램만큼은 부족함 없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희 시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축제장을 방문해 우리의 전통문화인 도자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축제의 추억을 만들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욱 차별화된 축제를 위해 도예 관련 전문가, 축제 현장 전문가 등으로 이천시도자기축제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7일 현재 3차까지 진행됐다. 2023년 도자기축제실무위원회는 이천도자기예술마을, 사기막골 도예촌 등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며 축제 현장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37회 이천도자기 축제는 이천도자기예술마을(에스파크)과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4월 26일부터 5월 7일(12일간)까지 열린다.

이성용/기자

부산시, '커피도시부산포럼 출범식' 개최

커피하기 좋은 도시 부산(Busan is good for Coffee) 위해 힘 모은다



▲ 부산시, 커피도시부산포럼 출범식 개최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4시 모스 로스터리&커피바(영도구 봉래동 소재)에서 커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커피관련 협회,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커피도시부산포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커피시장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가운데, 부산은 국내 커피류의 약 93% 이상이 수입되는 물류 거점이자, 국내 최초 '세계바리스타 챔피언십(WBC)' 우승자 배출에 이어 부산 출신 '세계 커피 챔피언십(WCC)' 우승자를 다수 배출하는 등 우수한 입지와 인적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커피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2021년부터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브랜드개발, 축제 육성 지원, 연구개발 및 인증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본격적인 논의와 협력을 위해 '커피도시부산포럼'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갖게 됐다. '포럼'의 공동조직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과 김진수 부산일보사장이 맡았고, 자문

위원,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협의체 성격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사무국을 운영하여, 지역 커피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산·학·연·관 가치사슬(밸류체인) 협력체계 구축, 7개 분과별 커피산업 현안 파악 및 해결, 신규 정책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출범식은 ▲조직위원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개회사 ▲커피도시부산포럼 발전 협력 선언 ▲스페셜티 커피협회(SCA) 디렉터, 커피업계, 커피챗피어인이 참가하는 커피 토크콘서트 ▲2022년 월드 컵 테이스터스 우

승자인 문현관 씨의 커피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미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육성하는가에 달려있다"라며, "오늘 커피도시부산포럼 출범식은 커피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부산시가 '잠재력 있는 국내 커피도시'에서 '세계적인 커피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커피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송종진기자

의성군,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의성군은 청년의 유출과 고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4월 말(20~21)일까지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유입을 도모하고자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3개 분야(△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책 지원사업,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경상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1인당 사업화자금 2천만원 및 창업교육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2년차의 경우 사업화자금을, 3년차에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경상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

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사업화자금 2천만원과 창업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무실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갖춘 의성군 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의성군 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청년에게 사업화자금 1,200만원과 창업 보육프로그램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기간 동안에는 창업공간(의성군 창업허브센터, 경북북부권 청년창업보육센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2023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역사업

모집기간: 2023. 3. 30(목) ~ 4. 20(목) 18:00까지

-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경상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 가능)
- 2. 지원분야: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책 지원사업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 3.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컨설팅 △사무실/주거공간 지원
-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의성군 홈페이지)
- 5. 문의처: 의성군청 기획경제과 창업지원팀 (☎ 054-830-2311)

개통 5주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천바다케이블카

5주년 맞아 누적 매출액 420억여원 달성...관광 명소 인증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시, 민간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사천시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오는 4월 13일 개통 5주년을 맞게 된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전국 최고의 오감만족 해상케이블카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타이틀과 함께 사천의 미래 50년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2018년 4월 13일에 개통해 23일만에 탑승객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개통 1년도 채 되지 않은 350여 일만에 탑승객 100만명 돌파를 기록한 것.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선제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지난해에 매출 65억원의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2021년보다 15억원이나 오른 실적으로 명성을 굳건히 지키는데 충분했다.

현재까지 누적 탑승객 수 총 290만여명, 누적 매출액 총 420억여원을 달성, 침체됐던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인기 비결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육지에서 섬으로 바다를 건너는 여수케이블카, 육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통영케이블카의 장점으로 하나로 모든 종합선물같은 새로운 형태의 케이블카이다.

삼천포대교 맞은편 대방정류장에서 초양정류장, 각산정류장, 다시 대방정류장으로 순환 운행하는데, 사천바다를 건너는 짜릿함과 환상적인 뷰 등 종합서비스 개념의 오감만족이 가능하다.

바다와 산,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빼어난 절경이 펼쳐지는 데 쪽빛바다와 작은 섬들, 점점이 떠 있는 어선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또한, 사천바다의 명물 죽방렴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각산 중턱에 위치한 아름다운 편백림은 이미 최고 힐링공간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토종돌고래 '상괘

이'의 헤엄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돌고래가 아니다보니 감성폭발의 촉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주 최고 높이가 74m인데, 이곳에서 느끼는 아찔한 스릴은 두말이 필요 없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대상에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의 풍경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사천시가 최근에 지역 관광 명소를 8경에서 9경으로 재편하면서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삼천포대교공원과 함께 1경으로 선정했는데, 지역 상인들이 '케이블카 특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탁월한 안전성 사천바다케이블카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성이다.

최악의 비상상황 시 자체 구동모터를 장착한 특수구조차량이 캐빈에 직접 접근해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상구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설계 당시부터 각종 풍동시험을 거쳐 초속 22m의 폭풍급 바람에도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돌발 기상상황에 대비해 모든 지주에 풍향·풍속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에는 휠체어나 유아모차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마음까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안전성을 높이 평가받아 '2018년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에 비롯해 '2019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 '제11회 코리아 탑 브랜드 어워드' 안전브랜드 부문 대상, 제12회 행복더함 환경사랑공헌부문 환경부 장관상 등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국제표준 규격의 '안전보장경영시스템(KOSHA-MS)' 등 혁신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며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 거듭났다.

◆ 케이블카 중심의 새로운 관광산업 창출

지난 4월 3일에 취임한 한재천 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사천 해양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중심으로 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을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0년 9월부터 시작한 케이블카 야간운행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빛의 조명과 전국 9대 일출 '실안나조', 그리고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와 함께 어우러져 사천 밤바다 여행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또한 남해안 관광 행정협의회(사천, 남해, 하동, 통영, 거제, 고성)를 비롯해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오션비스타 제주호' 등 업무협약을 통해 사천시 관광발전과 케이블카 중심의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출해 왔다.

앞으로 케이블카는 5개 섬을 잇는 무지개빛 생태탐방로와 실안 리조트형 호텔을 비롯해 올해 상업은행 할대관람차, 회전목마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산업 창출로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해양 휴양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개통 5주년 맞아 준비한 고객 사은 이벤트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5주년을 맞아 홍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13일부터 16일까지 케이블카와 생일이 같은 4월 13일생 탑승객에게는 케이블카 무료탑승과 함께 동반일행 5명까지 각각 5천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외 탑승객에게는 2천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16일까지 공단 SNS에 케이블카와 관련된 추억·사진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한다.

한재천 이사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따라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와 해양관광 발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사천바다케이블카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통영시, 경남개발공사와 신규 관광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신규 관광개발사업 전략적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통영시는 4월 10일 통영시청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신규 관광개발사업의 전략적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경상남도 관광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고, 통영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 기관의 상호발전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개발공사는 경상남도 관광정책(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용역을 시행하고, 통영시에서는 통영시 관광정책에 부합하는 대상 후보지를 경남개발공사와 공유하고 민간투자자 유치에 대한 후속행정 이행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통영시는 이번 협약이 신규 관광개발사업의 발굴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관련 사업



의 민간투자자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정책과 시 관광정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영양교육지원청, 사제동행 영양 민주시민교육

영양학생자치참여위원 민주시민리더십 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연수 실시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2023년 4월 10일 학교별 학생대표로 구성된 영양학생자치참여위원의 민주시민리더십 교육과 함께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학생 민주시민 리더십 교육과 교사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의 '민주시민교육과 민주토론의 의미'에 관한 강의로 시작했다.

이 후,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후원으로 후보들의 공약 제안과 함께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 유치'를 주제로 찬반토론이 진행되어 후보자의 사회참여의식과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투.개표에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경북학생자치참여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대표(고등학교 1명)와 부대표(중학생, 초등학교 각 1명)가 선출됐다.

교사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민주적인 토론과 선거 과정을 참관한 교사 000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뚜렷한



주관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학생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민주적 역량의 발현을 돕는 방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김유희 교육장은 "민주시민교육이 교과서 안에

서 그치지 않고 참여와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가 더불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이끌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의 기반을 다져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 달서구 아동친화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8일 달서아트센터에서 달서구 아동친화모니터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모집된 아동친화모니터단원들에게 워크숍을 수여하고 아동권리교육과 독도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아동역량 강화 및 단원간의 관계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달서구 아동친화모니터단은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아동권리침해 상황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동참여기구이다. 2019년 12월, 달서구와 굿네이버스에서 공동 추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멘토 37명으로 구성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현장 조사 및 포토포이스 활동, 아동권리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활동 등 다양한 아동권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친화모니터단이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은 '어린이운동기구 설치'로 관내 어린이공원 4개소에 어린이운동기구 8점을 설치했고, 올해에는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로 모니터단원들이 선정한 위험한 등굣길을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편, 달서구는 2021년 6월 10일 대구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놀이터같은 도시, 친구같은 달서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퍼스 운영, 아동전용시설인 달서아이공센터 운영, 청소년복합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그리고 우수시대를 준비하는 별빛천체과학관을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동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동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개최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 주제, 간절했던 독립의 열망 되새겨...

경북도는 11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자존의 의식 확립을 위한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직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을 개원해 일제에 조직적으로 항거했으며, 근대적인 헌법 체제를 갖춘 민주공화제 정부의 탄생으로서 의미가 크다.

경북도에서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해 도민들의 나라사랑정신으로 발전시키고자 광복회 경북도지부 주관으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태형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권기창 안동시장, 지역도의원(김대일, 김대진, 권광택) 등 도내 주요인사, 기관단체장과 보존단체장, 유가족,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추모벽 참배 △식전공연 △악사보고 △환영사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축하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 기념식은 선열들의 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자 한 위대한 역사이며,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뿌리"라며, "경북도에서는 불굴의 독립정신

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도약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공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훈과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영주 사과축제'의 새 이름 공모 수상작 발표... '640 대축제' 최우수 선정

모든 농특산물 한자리에...10월 27일 ~ 29일 펼쳐지는 영주 농특산물 대잔치

영주문화관광재단이 11일 '영주 사과축제 명칭 공모' 수상작을 발표했다. 영주시는 영주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영주 사과축제'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영주 사과'를 포함한 우수한 영주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새로운 축제로 확대 추진을 결정하고 새로운 축제에 걸맞은 명칭 공모를 전국민 대상으로 지난 3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320명, 820여 건의 축제 명칭이 접수돼 1·2차 내부심사, 3차 심사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당선작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결과 환우를 의미하는 옥류의 6, 영주 사과의 4, 영주시의 0을 연결한 '640 대축제'(경상남도 진주시/김*환)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재단은 '640 대축제'는 모두가 친근하게 기억하기 쉽고, 영주시 농특산물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공모 주제에 부합하다는 선정 사유를 밝혔다.

그 외 '영주장날'(경상북도 영주시, 박*화)이 우수상을, '영주 한사랑 사과축제'(울산시 중구, 정*희)와 '영주 효자 특산물 몽땅축제'(서울시 양천구, 이*만)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최우수상(1명)에는 50만 원, 우수상(1명) 30만 원, 장려상(2명) 10만 원의 영주사랑 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재단 관계자는 "영주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명칭을 공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0월 개최 예정인 축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2023영주 사과축제(가칭)'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영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2023년 안동형 일자리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동시와 안동대학교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은 4월 19일까지 안동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 주기에 따라 '창업 첫걸음 지원사업', '창업 돌음 지원사업', '창업 성장 지원사업'으로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에게 집중되어 있는 창업지원을 중·장년층까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만 19세 이상의 안동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창업 첫걸음 지원사업은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을 선발해 창업지원금 최대 1,400만 원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초기 기업의 사업역량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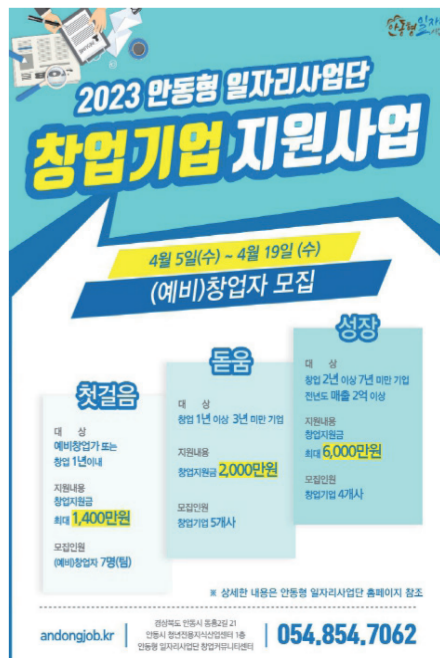
▲창업 돌음 지원사업은 창업 1년 이상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창업지원금과 기업 맞춤형 IR피칭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개최 예정인 '2023년 대한민국 창업 경진대회'에서 IR피칭을 통한 투자 유치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 성장 지원사업은 창업 2년 이상 7년 미만인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지원금 최대 6,000만 원 지원 등의 특전을 부여해 경쟁력 있는 지역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취업자나 지역 소재 교육기관의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인 청년 근로자 1명을 반드시 신규 채용해야 한다.

창업 지원금은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창업문화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업의 경쟁력, 사업의 수익성 등 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예비 창업가와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 중소·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상주시, K-스마트팜 기술로 농업의 한류 견인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해외 방문객 증가



상주시에 스마트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는 해외 방문객이 증가하며, K-스마트농업 확산의 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상주시 사벌곡면 일원에 조성된 첨단 농업단지이다.

전국 최대 규모(42.7ha)로 청년보육센터·실증지원단지·임대형스마트팜과 같은 기본시설뿐만 아니라 청년농촌보급자라·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문화거리 등 지역 맞춤형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 등 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다.

규모뿐만 아니라 운영의 성과 측면에서도 전국 최고 혁신밸리로 손꼽힘에 따라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기관·기업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2022년 1월 본격적인 운영으로 운영한 이후 2023년 4월 현재까지 10개국에서 150여 명의 인원이 상주 혁신밸리를 다녀갔다.

주요 방문 국가로는 필리핀·베트남·중국·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를 비롯해 미국·네덜란드와 같은 서양권 국가에서도 상주 혁신밸리를 방문하며 한국의 스마트농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동현/기자

김학동 예천군수,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현장 찾아 '꼼꼼 점검'

공사 추진현황, 추가 개선방안, 운영상 문제점 등 함께 논의



김학동 예천군수는 4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 마무리 단계인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막바지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기획된 공간별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성공적인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군수는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는 물론 운영부서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추가 개선방안, 운영상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운영 시 미비점, 불편 사항 등을 미리

진단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밀착형 공공편의시설로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61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519㎡, 건축연면적 10,81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 후 6월까지 시운전과 시범운영 후 하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건물은 △지하 1층 공동육아나눔터 △지상 1층 가족센터 사무실, 상담실,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지상 2층 주민자치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교육실, 청소년 문화의 집 강의실, 북카페 △지

윤근수/기자

경북도, '참별이'와 함께, 생생버스 타고 지방시대로!

두 번째 여정, 전국 최대 참의 주산지! 별고을 성주로 힘차게 출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전국 최대 참의 주산지인 별고을 성주군을 방문해 민선8기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두 번째 생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주군 건강문화캠퍼스에서 열린 생생 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이병환 성주군수, 김성우 군의장, 강만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지역 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생생 토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주군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등 군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지사는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비상품 참의'를 활용한 한우 사료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북도에서는 2008년부터 농업법인, 농축협·한우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국내산 조사료와 부산물 이용 확대를 통한 사료 가격 절감을 위해 사료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축순환농업의 성공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 현장방문지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인 성주호 둘레길 준공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둘레길을 걸으며 서부권역 관광 거점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경북생태·힐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생간담회는 '지방이 살아야(生) 나라가 산다(生)'의 의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반영한 '현장소통프로젝트'다.

생생버스를 타고 경북 대전환과 지역 재도약을 향한 경북의 힘을 충전하고자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과 격의 없이 소통해 건의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

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현장에서 나눴던 다양한 목소리를 정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삶 속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확실한 지방시대를 향한 답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만의 특색 있는 상품으로 인바운드 관광에 활기를! 2023 대구 인바운드 '스타여행사' 선정 공모전 개최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3 대구 인바운드 '스타여행사' 선정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회복세를 되찾고 있는 대구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인바운드 여행업이 가능한 대구소재 종합여행업 여행사를 대상으로 '파워풀 페스티벌 연계 인바운드 상품 개발 및 운영', '대구 대표 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 활용 인바운드 상품 개발 및 운영'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되는 5개의 '스타여행사'에게는 △인바운드 여행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현지 세일즈 및 B2B상담회 참가비용 지원, △온라인 플랫폼 연계 인바운드 상품 프로모션 지원, △인바운드 상품 운영 우수 여행사 고객지원비 지급, △그 외 대구광역시 및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주관행사 연계상품 판매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전 접수는 신청서와 인바운드 상품 구성 계획서를 작성 후 이메일

로 신청하면 된다. 김성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인바운드 관광생태계를 우리 지역 내부에서 활성화할 기반을 만들고자 본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대구 소재 여행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교사의 챗GPT 활용으로 따뜻한 경북 AI 키우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까지 학교 현장의 챗GPT 활용 활성화를 위해 '경북 챗GPT 활성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챗GPT 활용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챗GPT의 교육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챗GPT의 최근 동향 및 국내외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업무개선 사례 및 교실 수업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 '교원용 챗GPT 활용 가이드북'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일 금오공대에서 열린

2차 TF팀 회의에서는 관련 전문가(정유철 교수)의 강연 및 챗GPT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업무와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북형 챗GPT 활용 모델 및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업무 혁신 및 수업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따뜻한 경북 AI'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영양중·고등학교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영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배준현)와 영양중·고등학교(교장 최병국)는 10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협업관계 구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용 및 운영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문화콘텐츠 연계, 교육 및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영양중·고등학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배준현 센터장은 "영양중·고등학교와의 협약을 계기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영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병국 교장은 "영양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해 다



양한 영역의 공간을 활용하여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양군 복합커뮤니티센터(어울림터:마당)는 영양우체국 건너(영양읍 팔수로 544-1)에 위치한 지상 3층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중 한 곳이다. 1층에는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연습실, 2층에는 공부방(독서실)&북카페, 강당, 3층에는 마을공동작업장이 있으며, 자세한 이용문의는 도시재생지원센터(2층 소재, ☎054-683-6377)로 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시민의 시선으로 '구미 속 인문학'을 담다

2023년 '인문학에 품다' 구미시민인문기록단 운영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시민들이 지역의 주체자로서 활동하며 시민이 보는 인문도시 구미의 모습을 책자에 담아 기록해 보는 "인문학에 품다" 사업에 참여해 2023년 구미시민인문기록단을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

구미시민인문기록단 「인문학에 품다」는 시민이 직접 구미 인문학 사업 관련 현장에 참여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구미 인문학 사업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세 번째로 진행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대상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구미시민이면 가능하고, 특히 ▲인문학 활동과 책에 관심 있는 분 ▲인터뷰를 배우고 실제로 진행해보고 싶은 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분 ▲자신의 글을 책자에 실어보고 싶은 분을 환영하며, 참여를 원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5월 초 사업 운영 전반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을 시작으로 8월까지 4개월간 인터뷰, 사진, 글쓰기 교육 등 기록단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미시 인문학 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동 내용과 활동 소감을 기록한 "나의 인문 여행 답사기" 기록집을 발간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는 구미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https://www.gumi.go.kr/edu/>)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동현/기자

나의 인문 여행 답사기



도시에서 농촌으로... 봉화군에 살아보러 왔습니다! 봉화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운영 시작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 열어...오는 6월 24일까지 진행

봉화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27일 소천면 협곡구비마을에서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소천협곡구비마을은 분천역의 협곡열차와 소천급이길, 낙동강의 협곡 등 산, 강, 열차를 품은 아름답고 푸른 청정자연을 가진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올해 1기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6월 24일까지 3개월간 생활하며 여러 선도농가를 견학하고 봉화군 주요 명소를 탐방하는 등 주로 농촌이해, 지역 교류·탐색, 영농실습으로 구성된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선배 참가자 이 씨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좋은 환경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농촌을 알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도움과 추억이 됐다"며 "이번 참가자들이 역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작년 농촌에서 살아



보기에 참가한 8가구 중 3가구가 봉화군에 정착한 만큼 올해 역시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봉화군의 인구 활력

을 되찾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금자/기자

'제6회 선덕여왕배 전국여자 야구대회' 경주서 15일 개막

전국 39개팀 900여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경주에서 전국 최대 규모 여자야구대회인 '제6회 선덕여왕배 전국여자 야구대회'가 열린다.

시는 '제6회 선덕여왕배 전국여자 야구대회'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토·일 4일간 경주베이스볼파크 및 경주야구장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대회는 경주시와 한국여자야구연맹이 주최하고, 경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한다.

경기는 최대 규모로 전국 39개 팀 900여명이 참가해 리그 분리 토너먼트 형식으로 챔피언리그와 퓨처리그로 나뉘어 열린다.

오는 15일과 16일에는 예선부터 8강전이, 22일에는 준결승, 23일에는 3·4위전, 결승전이 각각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완화에 2019년도 대회 이후 4년 만에 경주베이스볼파크 1구장에서 15일 개최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개최된 제5회 대회에서 챔프 리그는 '대전 레이디스'가 '서울 리얼디아몬드'를 상대로 11:5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퓨처 리그는 '창원 참미야'가 '서울 위너스여자야구단'을 13:5로 승리하여 우승을 거머쥐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선덕여왕배 전국여자야구대회를 통해 한국여자야구의 저변 확대와 전국을 대표하는 여자야구 대회로 발전시킬 기대한다"라며 "참가규모를 고려해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여자야구단인 '경주여자야구단'을 창단, 각종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여자야구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윤타용/기자

전남농기원, 비파 고품질·고소득 모델 개발

조중생종품종·하우스 재배기술 도입해 출하 3개월 앞당겨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조중생종 비파인 '조아비' 등 3가지 품종의 하우스 재배 기술을 지원, 출하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고소득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적용으로 노지 재배 생산 대비 판매 단가는 2.7배 증가한 kg당 4만 5천 원, 단위 면적당 수익도 10a당 1천만 원을 기록해 3배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완도 군외면 양동근 농가는 이번 재배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고품질의 과실을 3월 중하순부터 조기 생산하고 kg당 4만 5천 원의 높은 가격으로 백화점, 마켓컬리, 피피 등에 출하하고 있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비파는 수확 시기가 장마와 겹쳐 껍질 변질 등 품질

이 떨어지고, 6월 집중 출하로 판매 유통이 집중돼 산업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조중생종인 조아비 등 3가지 품종을 완도 군외면 소재 시설재배 5농가에 하우스 재배 기술을 지원해 수확 시기를 기존 6월 중하순에서 무려 3개월 앞당겼다.

이는 기존 만생종 위주의 품종을 조중생종 품종으로 개량하고 동계 개화기 안정 착과를 위해 최소 가온 및 보온커튼을 활용해 최소 5°C 수준의 시설온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또 상품과 생산을 향상 위한 적정 과실 숙기, 과피 상품성 증진을 위한 봉지 씌우기 기술도 한몫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 밖에도 비파 재배 농가 소득 증대 및 고품질 브랜



드화를 위해 품종 개량과 조기 수확이 가능한 재배기술 연구는 물론 농업인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결실 조절, 병해충 방제, 품질 관리 기술 등을 집약한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비파 하우스 재배에 스마트팜 기술을 조속히 도입해 자동화된 농사 기술을 확산하고 상품성을 더욱 높여 고소득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아열대 과수로 재배되고 있는 조중생 비파는 비타민A, 펙틴, 칼륨, 무기물 등이 풍부해 기능성 과일로 각광받고 있다. 전국 100ha의 재배 면적 중 전남이 90%(91ha)를 차지하고 있다.

정해명/기자

광주광역시, 2024 국비 확보 '첫 재 정전략회의' 개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내년도 광주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전체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시 재정 현황과 202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예산안 편성 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 세계 경제위기 확산,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현실화됨에 따라 위기대응을 위한 꼼꼼한 재정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전략회의는 관성적으로 해오던 기존의 예산편성 절차를 새롭게 보완해 재원의 전략적·과학적 배분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선 8기에 처음 마련됐다.

광주시는 앞으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 중점 투자 분야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다변화 방안 ▲중앙부처 공모사업 관리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3월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시민의 행복에 도움을 주고 광주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회성 사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대응 논리 개발을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이다.

또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공모 전 재정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파급효과 및 시민의 복리 기여도가 높은 사업들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주요 사업들도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융·복합적으로 추진해 재정 운영을 내실화·효율화 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대내외의 경제여건 분석, 세입전망, 투자수요 분석 등을 통한 재정 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 설정 등 2024년 재정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세수 감소 등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편성,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정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시장은 "공모사업의 경우 시민의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되, 국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한 실국간 조율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고, 이를 통해 시민 행복에 한발짝 더 다가서자"고 당부했다.

김병수/기자

KBS 전국노래자랑 '보성군 편' 녹화 방송

국내 최장수 방송프로그램으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7년 만에 보성군을 찾는다.

보성군은 5월 16일 오후 2시 벌교 스포츠센터 앞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KBS 전국노래자랑 '보성군 편'을 녹화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편은 지난 2016년 보성 다향체육관에서 개최한 이후 7년 만이다.

예선은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14일 오후 1시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최종 선발된 15~20팀은 본선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전국노래자랑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 동안 진행된다. 보성군에 거주하거나 군 소재 사업자·직장인·학생 등 보성군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처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또는 보성군청 문화관광과이며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기념해 개최되는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많은 군민이 끼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인생에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색다른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산동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센터 본격 가동

남원시는 지난 4월 8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산동문화플랫폼 '산동이랑 문화랑'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동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복지 플랫폼 '산동이랑 문화랑'의 준공식은 산동면 농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공로패 전달, 장학금 전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컷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대박 기원 이벤트, 다과, 카페 무료 시음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관내 식당에 오찬을 준비해 주민 소통의 장이 됐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면 소재지 등 배후 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해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마을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40억원 규모로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확정, 2019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4개년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은 '산동이랑 문화랑'이라는 명칭의 문화플랫폼으로 대지면적 2,906㎡에 지상 1층 건축면적 735.5㎡ 규모로 다목적 강당,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동아리 활동실 등을 갖추고 산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문화플랫폼까지 이어지는 보도 옆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다목적 강당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종 회의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며, 매일 마지막 날 무료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작은도서관은 2,700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주민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대여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주민카페는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조성했으며, 야외테라스는 자연과 함께 편안한 쉼의 공간으로 꾸며 주민은 물론 산동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남과 소통의 최적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산동면 기초생활거

점조성사업이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됐던 면 단위 거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문화·복지 활동,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농촌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센터 고재은 운영위원장은 "우리 산동면민들의 열원이었던 기초생활거점사업 준공식을 축하한다"며, "산동이랑 문화랑은 면민들이 주인이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도 이용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우리 모두가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자."고 말했다.

한편, "산동이랑문화랑"은 지난 3월부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탁구, 가족공예, 난타 등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남출/기자

http://chunhyang.org

빛을그리다

추향

2023.5.25^목 ~ 5.29^월

제93회 **남원**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김영록 전남도지사, “무안공항정기노선 최단시간내 유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책 사무관리비 의혹 재발방지책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제정으로 최단시간 내 정기노선을 유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침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무안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일부 해외 관광객 이탈자가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무안공항은 전체의 3%로 전국 평균(5%)보다 낮다”며 “해외 관광객 관리를 잘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제주항공 등 노선을 유치해 이용객이 90만 명을 넘었다”며 “지금처럼 공항 재할성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선 항공사와 공항 이용객 등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 정기노선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도쿄전력의 환경모

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해 오는 6월 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주변국들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산인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일대에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수요가 많은데, 산단 용지가 부족해 인근 동부권에 대규모 특화산업 조성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부처에도 지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라며 “자유구역청과 도가 협업체 동부권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산단을 조속히 조성토록 하자”고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중권 유치를 위해 관련 투자 및 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2030 부산국제박람회 유치도 준비



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국제행사를 남해안 남부권의 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남해안 경전선 철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이 예정대로 2028년 완공되도록 온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을 신뢰하고 지지해준 도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감사관실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명확히 규명하

완주군,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만들어요”

완주군 주관 로컬푸드 신규 출하 농가통합교육 추진

완주군은 10일과 11일 양일간 로컬푸드 신규 출하 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기 로컬푸드 신규농가 통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사전에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됐으며, ▲로컬푸드 기반 완주군 먹거리 정책 ▲농업농촌의 이해와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 전략 ▲완주로컬푸드 인증제도 및 PLS 등 농산물 안전관리 등의 주제를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을 직매장에 출하하려고 교육 신청을 했는데 교육을 받고 완주 로컬푸드를 이해하게 됐고 특히 로컬인증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기획생산 교육은 품목선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완주군은 더 많은 중·소농, 가족농의 로컬푸드 참여를 높이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통합교육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 로컬푸드 관계자는 철저한 농가교육을 통해 농가조직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로컬푸드직매장은 현재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5개소, 출원기관에서 1개소 지역농협에서 7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농축산, 가공품은 1,600여 품목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신선한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액은 596억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김광수/기자

완도군이슴에서 4월 30일까지 수산 특별전 진행

전남 완도군에서는 전복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의 날 특별전’을 실시한다.

특별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슴’ 기획관에서 큰 전복(7~11미, 1kg)을 구입 시 건당 5000원 할인쿠폰과 20,000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 배송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전복이 높은 품질임에도 4~5월 대량 출하로 인한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뿐만 아니라 4월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오전그린광장에서 ‘전복 직거래 장터’를 열고, 5월 4일 개최하는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때는 네이비 쇼핑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TV 프로그램 유치, 인기 유튜브 연계 수산물 홍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완도 수산물을 만나 보시길 바란다”면서 “어가 소득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및 홍보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 전복은 전국 생산량 대비 75%를 차지하며,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슘, 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한 것은 물론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진에도 좋아 ‘바다의 산삼’이라 불린다.

완도 전복 내장과 해조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으며, 세계적 권위의 해양 의학 분야 학술지 마린 드럭스(Marine Drugs)에 실린 바 있다.

양영욱/기자

완도군이슴 수산의 날 특별전

이벤트 하나!
큰전복 7~11미 1KG 구매시 5,000원 할인

이벤트 둘!
큰전복 7~11미 외 전산품 10% 할인

이벤트 셋!
배송비지원!
20,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04.03(일) - 04.30(일)

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 실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화순군은 지난 6일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2023년 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화순군은 취약계층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2023년 화순군 드림스타트 제1차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은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과 담당자가 슈퍼비전 회의 진행을 맡았다.

이번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의 슈퍼바이저로 초빙된 분은 마음이음 심리상담센터 상담사이자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숙경 교수이다.

슈퍼비전에서 논의 사항으로는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대화과정에서 사례관리 진행 시 아동 및 부모와 빠르게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슈퍼비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과 문제, 욕구파악, 지역사회 연계를 통

하여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화순군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슈퍼비전을 통한 전문가의 사례별 실제적 교육과 지도로 실무자의 드림스타트 업무수행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 향상, 아동통합서비스사업 효과 극대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나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2개 사업 신청·접수 ... 소비자 신뢰 확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먹거리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공동브랜드(나주오) 인증·허가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나주시는 '나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마크) 참여 희망 업체를 오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은 관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제조업체 등이다.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자(당류)·조미료·음료·주류·축산·수산물 등 총 7개류, 26개 상품군(274개 품목)이다. 세부 품목 및 신청 제한 등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달 신청 농업인, 단체·업체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지 심사를 통해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 생산설비, 원료, 상품성·안전성, 생산자 의지 등을 평가한다.

이어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상표 사용 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작년 기준 나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허가업체는 8곳, 63개 품목이다.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나주오' 신청 대상은 관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이 가능한 대표조직 및 가공업체이다.

대상 품목은 '상표마크' 상 상품류 구분 기준인 30류(곡물·발효식품·차), 31류(미가공두류·채소·과일·버섯), 32류(가공음료)이다.

오는 17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공동브랜드 로고 사용 허가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고 먹거리 수 있는 농특산물 제공을 위한 적극 업무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강진군, 6년 만에 세쌍둥이 출산 경사!

강진원 군수, 산모와 영상 통화로 축하 인사 전해

지난 6일, 강진군에서 6년 만에 세쌍둥이가 출생해 화제이다.

세쌍둥이는 남아 2명, 여아 1명으로 강진읍에 사는 이동훈, 김미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셋째, 넷째로 조선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31주 만에 1.5kg의 작은 체구로 세상에 나왔지만, 산모와 세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이다.

산모 김 씨는 2019년 첫째 딸 출산 후 둘째를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 지난해 10월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시험관 시술로 임신에 성공했고, 무사히 세쌍둥이를 출산하게 됐다.

조선대학병원에서도 몇 년간 세쌍둥이 출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담당 의료진은 원활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사전 모의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는 1주일 정도 조대 병원 입원 후, 강진의료원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강진군은 세쌍둥이 가정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상당), 인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최대 154만 원, 2주 기준) 및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최대 300만 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최대 700만 원), 영양플러스 지원 등 최대로 지원을 통해, 세쌍둥이 육아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세쌍둥이 가정이 받게 되는 육아수당은 월 180만 원으로, 7년에 걸쳐, 총 1억 5천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 강진원 군수와 군 관계자가 세쌍둥이 부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강 군수는 또 “6년 만에 세쌍둥이 출산은 우리 군에도 큰 경사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뿐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명실공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강진 건설’에 박차를 가해,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축하와 지원에 감사하다”며 “셋 다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 너무나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고, 어렵게 임신하고 출산한 만큼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면미 강진군 보건소장이 지

난 6일, 김씨의 친정(성진면)에 방문해, 군민 모두의 마음을 담은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꽃다발과 출산용품 전달했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을 군정 목표로 삼고, 지역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을 출산과 양육 정책뿐 아니라, 신규주택 조성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 청년창업 지원 사업, 창업청년 임대료 지원, 귀농 정착 보조사업 등에 녹여 넣으며, 지역 발전의 사활을 걸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추윤호/기자

영암군, ‘내 손 안의 건강 지킴이!’

영암군보건소는 4월 10일부터 6개월간 지역주민과 직장인 8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작년 60명 규모에서 올해는 20명을 증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대상자가 휴대폰 어플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하여 운동일기, 식사일기, 건강수치 등 측정내용을 기록하면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등 4명으로 구성된 보건소 전담팀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58세 미만으로 혈압·공복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진(질환자 및 약물복용자 제외) 자로, 초기 검진과 의사의 2차 검진을 통해 최종

참여자로 결정된다.

참여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워치를 지원받아 총 3회(최초, 중간 12주, 최종 24주)의 방문검진과 건강상담·영양·운동 등에 관한 1대1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작년 사업대상자였던 직장인 김모씨는 “이 사업을 통해 20kg을 감량해 체중 조절과 건강관리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 군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비대면 1대1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역 내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생활습관 개선과 셀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청년의꿈이 실현되는 ‘충남 청년마을’로 오세요”

홍성·예산,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 공모 선정...국비 12억 확보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지역 탐색, 일거리 실험 등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이 조성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홍성군 '홍성 청년마을(Plan. H.)'과 예산군 '슬슬해유'가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의 유희공간을 주며, 소통,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아이디어를 지역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홍성 청년마을(Plan. H.)'은 농촌(로컬)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창업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려는 청년들의 고민이 담겨있다.

홍성에 정착한 5개의 로컬 창업 청년 팀들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컬 특화형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나아가 예비청년 창업가들의 축적된 역량을 발전시킬 창업보육공간을 마련해 청년정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군 예산읍 일대에 조성되는 '슬슬해유'는 슬로 라이프를 재해석한 것으로 지역문화를 통해 청년의 자아실현 장을 꿈꾸고 있다.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관계안내소를 통해 청년들은 재래시장 등 구도심 지역에서 직접 삶과 자원을 탐구하는 현장체험형 지역(로컬)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마을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 마을에는 올해 국비 2억 원이 지원되고, 향후 2년간 사업 성과를 평가해 매년 최대 2억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도와 시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공간과 예산 등 다양한 청년정

착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도내에는 2019년 서천 '살기 좋고'에 이어 2021년 공주 '자유도'와 청양군 '청맛동', 2022년 아산 '도고(DOGO) 청년마을'과 태안 '오락발전소'가 공모에 선정돼 총 5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한 바 있으며, 아산과 태안은 올해 후속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과 함께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이러한 꿈과 도전이 현실이 되고, 마을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단체가 응모했으며, 충남 2곳을 비롯해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에 총 12개 청년마을이 조성된다.

최정근기자

청년의꿈과 도전이 현실이 되는 매력적인 세상 2023 청년마을입니다



태백시,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 및 차량통행 환경 구축



태백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보행을 위해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관내에 총 54등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동별 수요 조사에 의해 신규 설치될 가로(보안)등은 37등으로 사업비 7천7백만 원이며, 외곽 골목도로면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차량 통행과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연화산길(연화산~백산간) 15등과 태백문화원 앞(상장동) 2등 신설에도 사업비 3천만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시는 신설 사업 외에도 사업비 2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구문소동(장성여중 앞~문화아파트 간, L=1.5km) 노후 가로등기구를 교체하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을 관내 3개 업체와 체결하는 등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밝은 도시 태백, 안전한 야간 보행이 가능한 태백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양양군, 산림자원 조성 위해 17만본 조림사업 추진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76ha에 복구 조림 등 17만본 조림

양양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불피해 복구 및 목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방지 및 경제림 조림을 위해 산불피해지 및 벌채지 등을 중심으로 총 76ha 면적에 소나무, 자작나무 등 174,500본을 조림한다고 밝혔다.

군은 '22년 4월 현북면 원일전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피해지 60ha에 대하여 소나무, 자작나무 140,500본의 묘목을, 관내 도로변 및 유희지 등 6ha에 대하여 9,000본의 배롱나무와 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산불피해지 복구와 산림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행한 벌채지에 대하여 4월 ~ 11월까지 손양면 주리 등 사유림 10ha에 대하여 소나무 용기묘 25,000본을 식재하는 경제림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3년도를 맞아 신속하게 조림사업을 추진해 조림의 활착률을 높이고, 재정조기집행으로 민간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며, "숲가꾸기·풀베기 사업과 병행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예산사과와인(주) '추사40',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

2년 연속 우리술 증류주 부분 Best of 2023 선정

예산군 고덕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주)의 '추사40', '추사백25', '추사애플와인'이 2023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지난 2014년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주류 품평회로 90여명의 전문 주류 시음단의 심사로 우리 술, 와인, 소주, 맥주, 위스키, 등 주종별 최고 술을 선정하고 있다.

예산사과와인(주)의 '추사40'은 우리 술 증류주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Best of 2023으로도 선정돼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리나라 최고 증류주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추사40'은 예산지역에서 100여개 사과 농가로부터 엄선된 사과를 공급받아 생산하는 사과 브랜드로 유럽 방식의 증류와 오크통 숙성을 곁들여 지난 2019년 농식품부에서 주최한 전통주 품평회에서 대상상을 받았으며, 2022년 주류대상 Best of Best 수상 등 우리나라 최고의 술로 인정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전문가들도 외국의 고급 위스키나 브랜드 등과 비교

해도 품질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사과와인(주)에서 생산하는 사과 증류주인 '추사40', '추사25'는 각종 주류 품평회에서의 수상을 바탕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희석식 소주를 대신하는 프리미엄 증류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예산사과와인(주)은 관내 사과 농가들로부터 연간 300톤 넘는 예산사과를 공급받아 술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과 농가들의 판로 다양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부산물인 사과착즙박을 한우농가에 공급해 '사과먹인 소'를 사용하고 있다.

예산사과와인(주)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사과로 만든 우리 술, 와인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사과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사과 생산가들이 안정적으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상의 사과를 재료로 최고 품질의 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동해시, 지역 곳곳 활력 '마을 공동체사업' 본격화

10개 마을 공동체, 꽃밭조성 및 텃밭 가꾸기 실시

동해시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올해 특수시책으로 도심 속 유희지를 꽃밭이나 텃밭 등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마을정원 텃밭·꽃밭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가 조성한 꽃밭은 지역의 볼거리로 만들고, 텃밭에는 배추, 무 등을 재배, 향후 수확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예정이다.

현재 사업을 신청한 10개 마을 공동체에서는 지난 3월부터 꽃밭과 텃밭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꽃밭·텃밭 조성지의 제도 작업과 복토작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7개 마을 꽃밭 정원은 봄에 꽃이 피는 매화, 영산홍, 조팝나무를 비롯해 여름 해바라기와 수국, 코스모

스와 라벤더 등 가을꽃을 각각 식재하고, 3개 마을공동체 3,300㎡ 규모의 텃밭에는 옥수수, 배추, 무를 심어 수확한 농작물은 행복나눔 행사 등을 통해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에앞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초록도서관(초록빛깔 나눔터)과 바닷가 책방마을(추억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책방마을 밥상) 등 2개 공동체에서는 총 3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내달부터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본격 진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행복한동해 만들기 공모사업'에 25개 행복공동체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이달부터 지역 곳곳에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 컨설팅 지원과 함께 7월중 위원회 중간평가를 실시

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연말 최종결과 보고회를 갖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구성된 행복공동체만들기 위원회는 올해 제4기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이달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활동에 들어가게 되며, 위원들은 앞으로 3년간 행복공동체만들기 사업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사업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확산과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베이벨리 메거시티에 포함할 역제한 사업 발굴" 지시

주간 간부회의 주재시 3개 핵심사업 언급하며 실무적 준비 당부

박경귀 아산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열린 4월 두 번째 간부회의에서 "충남도지사 1호 공약으로 추진 중인 베이벨리 메거시티 추진사업에 대해 아산시가 원하는 3개 핵심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역제한 신규사업 발굴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국·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았다"며 3개 역제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아산만 순환 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달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조성이 확정된 천안 종축장 부지와 연계하여 둔포-영인-인주를 연결하는 충남형 순환 철도를 추가로 구상하여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순환 철도 건설은 베이벨리 메거시티 계획에서 제시한 평택-아산-천안을 연결하는 순환 철도 노선에서 소외 되어 있는 둔포 지역 발전을 10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며 충남형 순환 철도 사업을 거듭 제안했다.

박 시장은 두 번째로 배후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당진 평택항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후 물류 단지 조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서해안 고속철도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활용한 영인, 인주지역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 하겠다"며 베이벨리 메거시티 기본계획 반영을 역설했다.

세 번째로, 충남도의 자유 경제 구역 역청 신설과 관련하여 "아산시는 인주뿐만 아니라 둔포 제3테크노밸리와 당진 디스플레이시대를 포함한 모빌

리티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집적화 할 수 있도록 '거점형 경제자유구역 지정'되어야 한다"며 의제의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이벨리 메거시티 11개 사업 역제한에 아산시에서 제안하는 3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업 과제 발굴 및 반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실무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고정화기자

관악구, 올해 1만 1500여개 일자리로 민생경제 회복 돕는다

관악구가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와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더불어 행복한 경제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시했다. 구는 주거 중심인 지역 특성상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여건을 극복하고,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상대적 고용불안감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미래·혁신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11,500명, 고용률 63.5% 달성을 목표로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민생안정 ▲미래인재 청년의 자립 및 정착지원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회복 ▲일자리의 질적 향상 노력 등 5대 핵심전략 18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관악S밸리 조성'사업으로 기업 유치 및 성장, 안착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난 1월 개관한 신평벤처창업센터 3개소에 이어 '창업 HERO-1'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존 112개 기업, 711명에게 지원하던 창업공간을 146개 기업, 1,134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울대 연구공원 리모델링' ▲60억 원 규모의 '(가칭)관악S밸리 기업지원센터' 조성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스킴업'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체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정기 데모데이' 개최 ▲기술 컨설팅 지원 ▲창업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도 운영한다.

강감한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등 취약계층 12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직업교육훈련 아카데미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 등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기 위해 관악구청 1층에서 일자리 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4월부터는 서울대입구역과 신림역에서 현장 취업상담실을 운영, 10월에는 온·오프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자립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비영리단체에 청년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메이크업과 사진촬영을 지원하는 '강감한 청년 면접 스튜디오' ▲4차 산업 IT청년인재 양성과정 ▲오픈관악 청년통장 지원 등 청년의 구직역량 지원과 근로 장려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구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온라인마케팅, 세무법률 등을 교육하는 '상인대학' 운영 ▲상인 스티디그룹 활동 지원 ▲핵심점포 발굴·육성 ▲관악형 아트테리어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별빛산사리 상권르네상스 조성 등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은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다"라며, "올해도 다양한 경제·일자리 정책을 펼쳐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관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삼성 Neo QLED, 해외서 연이은 호평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2023년형 'Neo QLED'가 미국과 영국의 주요 테크 미디어들로부터 연이은 호평을 받고 있다.

테크레이더(Techradar) 미국 에디션은 Neo QLED 8K에 대해 "QN900C(국내 QNC900)를 테스트한 후, 8K의 팬이 됐다"며 "QN900C의 화질을 보며 조용히 탄성을 질렀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어떤 TV를 테스트 할 때도 겪은 적 없는 경험"이라고 평했다.

이 매체는 "삼성 8K TV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화질을 제공한다"며 "유튜브(YouTube)의 8K 콘텐츠도 훌륭했지만, 업스케일링된 4K 콘텐츠는 더욱 좋았다"고 덧붙였다.

테크레이더는 Neo QLED 4K 모델인 QN95C(국내 QNC95)에 대해서도 "QLED의 진화를 보여주는 최적의 사례"라면서 "미니 LED와 퀀텀닷 기술을 결합해 완벽에 가까운 블랙을 구현하며 밝기와 색 표현 또한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미국 테크아리스(Techaris)는 Neo QLED 8K를 '에디터스 초이스 & 탑 픽스(Editor's Choice & Top Picks)'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삼성 QN900C가 "삼성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우수한 스크린"이라며 "우수한 색상과 완벽에 가까운 블랙, 밝은 화이트가 돋보이며 밝기 또한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QN900C는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8K AI 프로세서와 타이젠 OS 탑재, 앱과 인터페이스가 빠르게 구동되는 점 등의 성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국 T3는 QN900C와 QN95C 두



▲2023년형 Neo QLED 8K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제품에 모두 5점 만점과 함께 '플래티넘 어워드(Platinum Award)'를 수여했다.

이 매체는 QN900C의 놀라운 8K 화질과 강력한 사운드를 강점으로 꼽으며 "강화된 AI 화질 처리와 미니 LED 덕분에 최고 수준의 명암비를 자랑하는 뛰어난 8K TV"라고 설명했다.

QN95C에 대해서는 "최첨단의 화질 기술뿐 아니라 색 온도 높은 퀀텀닷과 고유의 밝기로 놀라운 HDR 화질을 구현한다"고 호평했다.

공통적으로는 ▲강력한 스피커 시스템과 돌비 애트모스 탑재로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스트리밍 앱 ▲강화된 게이밍 관련 기능들을 언급하며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했다.

영국 트러스트드 리뷰(Trusted Reviews) 역시 QN95C 모델에 5점 만점을 부여하며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QN95C는 모든 게이머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이밍 기능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철기 부사장은 "2023년형 Neo QLED는 삼성만의 혁신 기술로 진화를 거듭해 온 제품"이라며 "화질, 사운드는 물론 디자인과 사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들로 글로벌 TV 시장 18년 연속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구시, 글로벌 미래 에너지산업 트렌드 한눈에! '제20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개막

역대 최대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최신 기술 제품 한자리에 모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엑스포 등이 주관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오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엑스코에서 25개국 300개사(1,010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대구광역시가 2004년 '제1회 세계솔라시티 총회' 개최를 계기로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국내 최대,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로 성장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솔라시티(Solar City) 대구'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수요기업도 대거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23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솔라루프,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전시한다.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전지 및 패널 리딩 기업인 한화큐셀, 통웨이, JA솔라, 론지솔라, 트리나솔라,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솔라루프,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전시한다.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전지 및 패널 리딩 기업인 한화큐셀, 통웨이, JA솔라, 론지솔라, 트리나솔라,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솔라루프, 에너지 저장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전시한다.

경기도의 창업 전문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이 새싹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도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연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도내 새싹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정보 제공과 함께 전문가 자문 및 제조 컨설팅,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약 22만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 3월 말 기



개사와 국내 리딩기업인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앤지, 한솔테크닉스, 아이솔라, 엔라이튼, 에스디엔, 알피오, 해동엔지니어링, OCI파워, 한화컨버전스가 스폰서로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았던 갈라디너(Galla Dinner) 행사와 일환으로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해 참가업체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그린에너지어워드(Green Energy Award)'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의 수출 진작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출상담회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진행할 예정인데,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베트남, 인도 등 22개국 81개사의 바이어가 참여함으로써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린에너지엑스포 기간 중 국내 유일의 태양광과 수소 분야의 비즈니스 콘퍼런스인 국제미래에너지 컨퍼런스(PVMI-H2MI)가 동시 개최된다.

4월 12일(수), 13일(목) 양일간 열린 태양광마켓인사이드(PVMI)에서는 'RE100 구현을 위한 태양광 발전의 미래'를 주제로 한 태양광 산업의 최신 트렌드가 공유되며, 4월 13일(목)과 14일(금) 양일에는 '수소-산업화 엔진의 시동을 걸다'를 주제로 한 수

소마켓인사이드(H2MI)가 진행된다. 올해는 최근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12개국에서 60여 명의 연사가 방한해 글로벌정책과 시장동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올해 처음으로 한국 RE100협회체 주관으로 'RE100 구현과 태양광 산업'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는 GGGI의 그린에너지 사업 개발과 파리협정 6조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중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20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기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트렌드 교류 역할을 넘어 국제사회 에너지 문제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문전시회이다"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참가 기업·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하노버메세 참석차 독일행... 세일즈 행정 본격화

4월 17일 개최되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 시의원 등 방문단 동행



이민근 안산시장이 사동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일즈 행정을 본격화한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2023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방문단을 꾸려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11일 밝혔다.

4월 17일부터 독일 하노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 박람회는 1947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76회째를 맞았으며, 최신기술 트렌드가 총망라되는 만큼 산업계에선 4차산업혁명의 발원지로 통한다.

지난해 기준 53개국 2,550개사에서 8,000여 개 제품을 전시하며 90,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박람회에는 안산시 관내 기업 2곳도 전시관을 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한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초점인 유럽출장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안산시의회 의원,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관내기업 3개사가 함께 방한해 글로벌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시장의 주요일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17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Labs Network Industrie 4.0 협회 임원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박람회장 공동부스에서 이 시장이 직접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독일무역투자진흥청 관계자들에게 안산시 투자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관련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과정에서 히든챔피언의 참사자로 알려진 헤르만 지몬 교수를 만나 안산시 공단 기업의 글로벌 비전 수립을 논의하고 국제유호 도시인 아헨특구시를 방문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5G, 3D프린팅, IT, ICT, VR, AI,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관련 최신 글로벌 기술동향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유치를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실어주는 방침이다.

일정 가운데 슈퍼터 전 독일 총리와 의 만찬도 계획되어 있어 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일즈 행정 기반'... 인구 유입 극대화 할 것" 한편, 이 시장은 이번 유럽행에 이어 상반기 중 두바이 해외 방문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기업 유치를 이끌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떠나는 출장인 만큼 일정을 꼼꼼하게 준비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2차산업 위주인 안산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IT·로봇·수소·신재생에너지 등 혁신 성장 동력을 발굴해 안산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세일즈 행정을 기반으로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해 인구 유입 효과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3년간 113억 원 새싹 기업 투자 성사

경기도의 창업 전문 온라인 플랫폼인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이 새싹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도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연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도내 새싹 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정보 제공과 함께 전문가 자문 및 제조 컨설팅,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약 22만 명이 방문했으며, 올해 3월 말 기

준 스타트업 회원 5,041명, 예비창업자 7,017명, 민간투자사 48개 사 139명 등이 회원으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또한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쿠팡 주식회사, 나이스평가정보(주) 등 민간기업과 협업체 클라우드, 재무관리, 각종 평가보고서 등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함으로써 새싹 기업 경영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한 성장 발판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개설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플랫폼에 등록된 새싹 기업과 투자

자 회원 간 성사된 투자유치는 59건 총 113억 원이다. 이 중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MLA) 타입 맥세이프 모듈을 개발한 주식회사 옴도전자(안양시, 대표 이준영)는 지난해 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고 '24년 증시 상장을 목표로 매출 확대 전략을 펴고 있다. 프리랜서 강사들을 위한 강습 공간 공유 서비스를 개발한 ㈜마크앤사이먼(성남시, 대표 조정현)은 지난해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기업소개(IR)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해 11월 투자를 유치했다.

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기회의 경기는 새싹 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로부터 시작된다"라며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이 더 많은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도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과 제조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련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허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사)소리사랑그룹 이충광 회장, 목포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남동구 야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학창시절 목포와의 인연,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500만원 기탁

(사)소리사랑그룹 이충광 회장이 지난 7일 목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신안군 출생인 이충광 회장은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낸 마음의 고향 목포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산다."며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늘 응원하는 목포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고, 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다."며 남다른 지역 사랑을 표현했다.

더불어 "목포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재정 강화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소리사랑그룹은 신안군 압해읍 소재로 지난 1월 5일 사단법인 정식 발족을 계기로 지역 인재 육성과 문화컨텐츠 진흥 활동 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3월 소속 회원인 가수 오선지씨가 KBS전국 노래자랑 목포시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를 응원해



주신 마음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공제)와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이 주어진다.

정해명/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하는 '일일 스포츠교실' 남동구서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종식 위원장)와 함께 하는 야구교실이 이번에는 인천시 남동구지역 야구 꿈나무들을 찾았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남동구 소재 주척체육공원 리틀야구장에서 전 프로야구선수 출신이자, MBC스포츠 해설위원인 박재홍 씨와 함께 '일일 야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일일 스포츠 교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론 및 실기 ▶사인회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선수들 및 학부모들과 함께 참석해 코칭 관람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일일코칭을 계기로 아이가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식 위원장은 "작년에 이



이 올해에도 야구교실에 흔쾌히 함께 해준 박재홍 해설위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축구·농구 등 인기종목은 물론 육상·레슬링 등 비인기 종목에까지 '일일 스포츠교실'을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 운동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일 스포츠교실'은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돼 예산은 들지 않으며, 재능기부 강사진 섭외와 프로그램 진행 학교 및 클럽 간 일정 조율이 되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0월 13일 동산중·등학교 야구부, 12월 8일 아라요소년야구단 등에서 진행됐다.

김종남/기자

인천시,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 입상작 12점 선정

4월 14일까지 인천시청에 전시, 내년 재난안전달력에 수록해 재난안전 홍보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2월부터 공모한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의 입상작 12점을 선정해, 오는 14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의 모습'을 주제로 전국의 8세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총 102점의 접수작품 중 12점을 입상작으로(대상2, 최우수상 2, 우수상 4, 장려상 4) 선정했는데, 최지우 어린이(작품명:안전 대한민국)와 성운후 어린이(작품명:안전한 세상 행복한 미래 모두가 함께 만들어요)가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상 수상작인 '안전 대한민국'은 안전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속도 준수,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한 메시지를 우수한 작품으로 표현했으며, '안전한 세상 행복한 미래 모두가 함께 만들어요'는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학교생활 안전 관련 내용을 뛰어나게 그려

냈다. 그 외에도 ▲최우수상 한소정(우회전시 우선명승), 김민경(음주운전 그만!!) ▲우수상 이수현(안전규칙 실천), 윤다경(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신건우(지진날 때 안전하게 대피해요), 박찬석(안전한 우리 학교) ▲장려상 장재연(우리의 안전, 우리의 손으로!) 박혜원(안전용품! 선택 아닌 필수!!), 박정은(어린이 보호구역), 김아원(아빠! 저희를 위해 1,2,3,4 지켜주세요)이 입상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입상자들은 지난 4월 8일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제8회 재난안전전시회 '시민 안전문화 체험축제' 개막식에서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특히, 이날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예방방법, 위험·위해 상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공모전 수상작들을 관람하고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이번 수상작들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도 4월 14일까지 전시되며, 2024년 재난안전달력 수록 및 인천상

공회의소 안전문화 가상전시 등 각종 재난안전 공익 홍보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그려낸 안전문화 그림을 보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통영시 '희망2023 이웃사랑 실천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지난 4월 7일 통영시는 희망나눔 우수기부자 3명에 대하여 경남사회공동모금회의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희망2023 나눔캠페인'에 동참한 기부자 중 지속적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준비한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 통영시의 '나눔을 이끄는 기부자' 감사패의 주인공은 정점식 국회의원, 동암굴 친목회(회장 김경열), 통영 RMCH 로타리클럽(회장 김희성)이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폐해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 원 기탁 이후 매년 연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씩을 쾌척하고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굴 어업인들이 결성한 단체인 동암굴 친목회(회장 김경열)는 지난 연말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 기탁에 이어 용남면에도 성금 2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통영 RMCH 로타리클럽(회장 김희성)에서는 연료비 상승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소외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2백만원 상당의 전기요를 기탁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어려운 경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에 모범이 되는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용준/기자

Advertisement for the 2023 Goyang International Horticulture Festival. It features a colorful background with various flowers and text: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The logo for the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is at the bottom.

구례군, 전남방문의해 맞아 '구례 산동 캠핑 페스티벌' 개최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농특산물 판로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남 구례군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산동 산수유축제장 일대에서 "꽃 피는 봄이 왔다 구례로 모이자"라는 주제로 '구례 산동 캠핑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했다.

19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캠핑 커뮤니티인 '달구지 캠핑' 회원 250팀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했다.

군에서는 전남 방문의 해 홍보와 구례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고향사랑기부제, 전남 쌀 소비 촉진 홍보 부스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장터와 먹거리 부스, 한우 농가 돕기 특별할인행사 등을 마련했다.

또한 어린이 참여자들을 위해 반달 가슴곰 키링과 낭비돌기 예코백 등

국립공원 굿즈 상품을 증정하는 '구례&국립공원 퀴즈'를 진행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 공연, 경품 행사, 구례 농산물 꾸러미 이벤트 등으로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은 "공기 좋고 아름다운 구례에서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며 "주변 캠핑들에게 구례는 캠핑하기 좋은 곳이라고 적극 소개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호 군수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구례는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도 많아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라며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를 맞아 구례의 관광 자원을 더욱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한국도자재단,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위해 해안 환경정화 활동 나서

○ 재단, 4월 7일 안산시 탄도항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사회공헌활동 실시

- 재단 임직원 60여 명 자발적 참여...매 분기 해안 환경정화 활동 추진
- 올해 첫 환경정화 활동에서 관광객, 낚시꾼이 버리고 간 각종 생활쓰레기 및 바닷가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 등 약 300kg 수거

한국도자재단 임직원 60여 명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안 환경정화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7일 안산시 탄도항에서 올해 첫 '경기바다 함께해(海)'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경기도와 연안 5개 시, 도 산하 11개 공공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도내 해양환경 보전 활동으로 재단은 올해 안산시와 협력해 매 분기 탄도항 일원에서 해안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안산시 탄도항은 갯벌 체험과 글램핑을 비롯해 바닷길이 열리는 누에섬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서해 일출 명소로 지난해에는 약 34만 7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다.

재단은 올해 첫 활동에서 관광객, 낚시꾼 등이 버리고 간 각종 생활쓰레기와 더불어 바닷가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 300kg 가량을 수거하는 등 해양 생태계 회복을 도왔다.

서홍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 경기바다 함께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ESG 경영을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길"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10일 전주 찾아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상황 점검

독립영화의 상징인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주를 찾아 영화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날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전주영화제작소 사무실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올해 영화제의 개막작과 폐막작 등 주요 상영작, 전주시 전역에서 이

루어질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등 영화제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내년 25돌을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 차관은 이어 영화제가 펼쳐질 주무대인 영화의 거리와 오거리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특히 과거 전주국제영화제의 메인 공간이었던 '전주동'을 대신할 오거리문화광장 내 관광객의 이동 경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 코

로나19 시기에도 영화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굳건히 영화제 자리를 지켜온 전주국제영화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영화제에 내·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늘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전주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전주 시민과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김승일/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동래구 사직 팡팡!! 플라마켓' 성료

부산 동래구는 지난 7일 사직종합운동장 내 아시아드조각광장 일원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를 대비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기원을 위해 열린 '동래구 사직 팡팡!! 플라마켓'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세계박람회 홍보와 벵쿠시장(플라마켓) 행사를 연계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현장에서 분위기를 조성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자 특별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 동래구는 40여개 팀이 참여한 플라마켓과 다양한 체험 행사, 포토존 및 홍보

관 등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사직야구장 프로야구 '23시즌 개막일에 행사가 진행되어 동래구 주민뿐만 아니라 사직야구장을 찾은 많은 야구팬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에 참여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확산에 힘을 보탬을 갖기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경기아트센터 '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참여 예술인 공모

경기아트센터, '2023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 참여 예술인 공모
도민들의 일상 속 거리공연·방문공연·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소외계층 모두에게 열린 기회 제공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는 '2023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참여하여 도내 곳곳에서 거리예술, 문화소외시설 방문, 전시 등의 활동을 펼칠 약 1,400팀(공연 횟수 2,000여회)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4월 12일(수)부터 25일(화)까지 모집한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도내 예술인 및 단체를 공모로 선정해 거리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외공간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전시 등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전문예술인뿐만 아니라 생활예술인도 참여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공연(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과 전시(사진, 회화, 조각, 공예 등 야외전시가 가능한 시각예술)로 나누어지며, 참여 예술인 및 단체에는 공연료 및 전시료를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들은 연중 경기도 각 시군의 거리, 공원, 광장 등 일상 공간 및 요양원, 군부대, 분교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펼친다.

한편, 참여 단체 선정 과정에서 소외계층(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술 단체에는 심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도내 소외계층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전문예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인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예술인들과 함께 경기도 곳곳을 직접 찾아 문화 향유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모집

공모기간: 2023. 4. 12(수) ~ 25(화) 15:00까지
 접수처: 경기아트센터 기획팀 (031-220-1100) / 031-220-1100
 접수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www.ggac.or.kr) / 현장 접수 (경기아트센터 기획팀)
 공모분야: 공연(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 전시(사진, 회화, 조각, 공예 등 야외전시가 가능한 시각예술)
 지원대상: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소외계층 모두에게 열린 기회 제공
 공모대상: 경기도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소외계층 우대)
 공모대상: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소외계층 모두에게 열린 기회 제공
 공모대상: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소외계층 모두에게 열린 기회 제공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및 단체는 지정된 양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streetart@ggac.or.kr)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아트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강원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한마음(발달장애인) 탄소발자국 걷기 대회 개최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강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의암호 수변공원에서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탄소발자국(탄소중립), 지구를 위한 1.5°C 약속!' 주제를 가지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한마음 탄소발자국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복진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실천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가능하다고 하며, 앞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발달장애인은 약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춘천시 소양강 처녀상부터 의암호 수변공원까지 약 4km에 달하는 구간이다.

걷기대회 행사 이외의 부대행사로 탄소중립의 인식제고를 위해 "공기정화식물 식재 체험", "에코백 만들기", "캘리 그래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 연구원과 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인식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주제 "그림 그리기 대회", "무료 영화 상영제(기후위기 주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삼척시, 제6회 소셜마켓 '함성' 오는 16일 운영

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성내 지구 도시재생사업 함께하는 성내 마켓 '함성'을 2021년 12월부터 총 5회 운영한 결과, 대학로 상가 및 셀러의 만족도와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 2023년에는 총 8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함께 롤러 경품 이벤트, 오늘의 셀러 등 홍보 이벤트도 운영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소셜마켓 '함성'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살거리·볼거리·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성내 마켓 '함성'은 오는 4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일 셋째 주 일요일 11시부터 17시까지 대학로 일대(명랑핫도그-대박호떡 구간)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제6회 소셜마켓 함성'은 읍성터전 및 문화예술놀이터(구 금성양화점, 금성장)의 문화공간과 행사장에서 누구나 참여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동네마켓(슈퍼)으로, 할인에 동참하는 대학로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예비·초기 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진 소셜마켓 '함성'은 셀러 및 자원봉사자들을 오는 4월 14일까지 모집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놀이터 등에서 다양한 체험행사, 버스킹 공연 등의 여러 부대행사와

함성

도시재생사업 함께하는 성내 마켓

2023년 4월 16(일) 11시 ~ 17시
 대학로 일대 명랑핫도그 - 영지점사

함성 ZONE
 판매 상품 판매
 체험 행사 판매

최만식/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영양
산나물축제**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image: Freepik.com". This cover has been designed using assets from Freepik.com